

프랑스와 예술의 혁명展

을 열면서

삼레문화예술촌은 1920년대 지어진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곳으로 201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. 그 후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발전하면서 올해는 완주군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는데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.

삼레문화예술촌은 2021~2022 완주방문의 해를 계기로 운영체제를 보완하고,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예술촌 [제1전시관]의 개관전시로 「프랑스와 예술의 혁명」展을 준비하였습니다.

1부에서는 시 「미라보 다리」로 잘 알려진 20세기 초 프랑스 대표작가 아폴리네르와 화가 마리 로랑생의 작품과 친필 편지 등이 소개됩니다. 2부는 1816년에 나폴레옹이 조선의 존재를 알게 되기까지의 문헌 기록과 관련 그림이 드라마틱하게 소개 전시됩니다. 3부는 안토니 반 다이크, 아돌프 몽티셀리, 외젠 부댕, 카미유 피사로, 폴 세잔, 앙리 아드리앵 타누스 등 18~20세기의 프랑스 유명 화가의 오리지널 유화작품이 전시됩니다.

「프랑스와 예술의 혁명」展은 책박물관의 「문자의 바다-파피루스부터 타자기까지」展과 지난달 임시 개관한 그림책미술관의 「요정과 마법의 숲」展과 함께 2021년 삼레의 3대 특별전시가 될 것입니다. 이 전시들은 대치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전시라고 자부합니다.

완주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2021. 04. 06
완주군수 박성일

제 1부

초현실주의 탄생과 사랑의 폭주- 아폴리네르와 그의 연인 마리 로랑생

시 「미라보 다리」로 잘 알려진 아폴리네르는 20세기 초 프랑스 화단에 초현실주의 용어를 처음 사용한 전위 시인이며 미술평론가다.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 마리 로랑생은 한때 그의 연인으로 이들은 서로에게 문학과 예술적 감성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불태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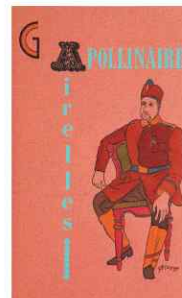
전시에는 아폴리네르와 마리 로랑생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프랑스 화단과 문단에서 교류하던 화가와 문인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. 파블로 피카소와 브라크, 모리스 드 볼라맹크, 앙드레 드랭, 라울 뒤피, 에드몬드 마리 폴랭 등의 그림과 판화, 조각 작품에 친필 원고, 편지, 출판물 등 180점의 유물이 소개된다.



아폴리네르 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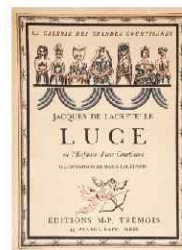
에드몬드 마리 폴랭
1905년경
동판화, Ed. 1/1
16x12.7cm

에드몬드 마리 폴랭(Edmond Marie Poulain, 1878~1951)은 프랑스 변호사이며 화가다. 1902년경 파리에 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 파리로 왔으나 그는 화가와 시인이 사교하는 카페를 출입하였다. 이때부터 아폴리네르와 앙드레 살몽(André Salmon), 폴 포르(Paul Fort), 막스 자콥(Max Jacob) 등과 가까이 지냈다. 폴랭은 1907년부터 1919년까지 변호사로 일했다. 1911년 아폴리네르가 모나리자 도난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자, 폴랭은 아폴리네르의 무죄를 변호하며 지원하였다. 2년 후 철도법이 체포되면서 아폴리네르의 혐의는 풀렸다. 이 작품은 폴랭이 1905년경 제작한 아폴리네르 초상 동판화이다. 판화 밑 부분에 사인이 있다. 본 작품은 단 한 장만을 판화로 찍어, 판화로서는 특이하게 유일한 작품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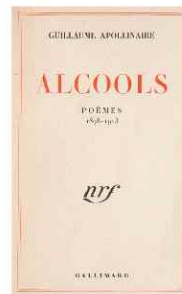
아폴리네르 초상 (Airelles de Guillaume Apollinaire)

A Liège
Éditions Dynamo
P. Aelberts Édituer
n.d. [1940's]
21 pp., 19x14cm



루체 (Luce)

Jacques de Lacretelle
Marie Laurencin (illust.)
Éditions M-P. Trémois, Paris
1931,
19.3x14.4cm



알콜 (Alcools)

Guillaume Apollinaire
Nouvelle Revue Française
1920 (Deuxième ed.)
174pp., 19.2x13cm

제 2부

나폴레옹과 『조선 서해안 항해기』

「나폴레옹의 임종」을 그린 스테방의 유화를 중심으로, 홀의 『조선 서해안 항해기』(1818) 와 또 다른 홀의 여행기, 홀의 친필 편지, 나폴레옹 관련 자료 등 28점이 소개된다.



나폴레옹의 임종

샤를 드 스테방(Charles de Steuben)
1788~1856, 1829년경
캔버스에 유화
99×117cm(그림 81.5×100cm)

샤를 드 스테방은 나폴레옹 시대 독일에서 태어난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이자 판화가다. 그는 1815년 워털루전투와 엘바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의 모습 등 생전 나폴레옹의 기록화를 남겼다. 이 그림은 「나폴레옹의 임종」으로, 1821년 5월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5시 49분, 세인트 헬레나 섬의 롱 우드 하우스에서 나폴레옹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역사적인 순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. 나폴레옹은 1821년에 사망했지만 이 그림은 1829년경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스테방은 나폴레옹 임종 순간의 가장 정확한 표현을 묘사하기 위해 나폴레옹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을 각각 인터뷰하고 초상화에 포즈를 취하게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.



조선 서해안 항해기 (Account of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)

바실 홀(Captain Basil Hall)
John Murray(London)
1818
xvi+222+c xxx+72 pp., 10 illus.(8 hand col.) 5 maps
27.5×22.7cm

제 3부

근대 프랑스 화가들의 반란

안토니 반 다이크, 프랑수와 부세, 위베르 로베르, 질 라자레 지로, 프란츠 빈터할터, 디아즈 드 라 페냐, 아드리앵 루소, 레옹 빅터 듀프레, 앙리 샤를 앙투안 바롱, 아돌프 몽티셀리, 외젠 부댕, 카미유 피사로, 샤를 에두아르 프레르, 폴 세잔, 알프레드 루이 비니 자코멧, 아돌프 카우프만, 앙리 아드리앵 타눅스, 마르셀 르프랑, 부르딘 등 근대 프랑스 유명화가의 오리지널 유화 작품 19점이 소개된다.



해바라기와 함께 있는 자화상

안토니 반 다이크(Anthony Van Dack)
1599~1641, 17세기
캔버스에 유화
75.5×88.3cm(그림 62×74.5cm)



여인들과 아이들

아돌프 몽티셀리(Adolphe Joseph Thomas Monticelli)
1824~1886, 19세기
나무판자에 유화
68×56.5cm(그림 47×36cm)



거위와 닭과 사내

알프레드 루이 비니 자코멧(Alfred Louis Vigny Jacomin)
1842~1913, 19세기
나무판자에 유화
그림 24×18.7cm

2021~2022 완주방문의 해
전라북도 대표관광지

완주방문의 해
이제 완주방문의 해
이제 완주방문의 해
이제 완주방문의 해



2021. 4. 6 ~ 9. 19
삼례문화예술촌 제1전시관

· 주최 완주군 · 후원 전라북도 · 기획 스페이지